

제10차 SPRFMO 연례 회의

'22.01.18(화)~01.28(금), 화상회의

제10차 남태평양지역수산기구(SPRFMO) 연례회의 참석 결과

2022. 02.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

I 회의 개요

회의명 : 제10차 SPRFMO 연례회의* **

* 영문명 : 10th Meeting of the SPRFMO Commission (COMM10)

** 제9차 SPRFMO 이행 및 기술 위원회(CTC9) 및 제9차 재정 및 행정 위원회(FAC9) 동시 개최

회의 목적

- 2021년 회원국별 이행 사항 검토
- 2022년, 2023년 사무국 예산안, 회원국 분담금 검토
- 이행 중인 보존조치 검토 및 개정 사항 논의

일시/장소 : '22.01.18.(화)~01.28.(금)*/화상회의

* 한국 시간 기준:

CTC9 : 22.01.19(수)-20(목), 03:00-07:00, 21(금)-22(토), 03:00-05:00

FAC9 : 22.01.18(화) 03:00-07:00, 21(금)-22(토), 05:00-07:00

COMM10 : 22.01.24(월)-22.01.28(금), 15:00-19:00

참석자(약 100여명) : 한국, EU, 중국, 러시아, 호주 등 회원국(15개국) 대표단 및 CNCP(3개국) 대표단, NGO 등

○ 한국 대표단

비고	기관 및 직위	이름
수석대표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김근령
대체수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나일강
정부대표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	김승현
정부대표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	김태린
정부대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박소현
정부대표	국립수산과학원	박경준
정부대표	국립수산과학원	김은정
자문	해외수산협력센터 전문관	김수민
자문	해외수산협력센터 전문관	원태훈
자문	한국원양산업협회	진호정
자문	한국원양산업협회	조성주
자문	한국원양산업협회	최동환
자문	동원 산업	정재훈
자문	동원 산업	김윤형
자문	정일 산업	박강휘

주요 의제

- 전갱이 보존관리조치 개정
- 대왕오징어 보존관리조치 개정
- 러시아 시험어업 보존관리조치 위반 사항

II 주요 논의 결과

1 제9차 이행위원회 [CTC9]

□ 회원국 보존관리조치 이행 평가

○ 시험조업 보존관리조치(CMM 13-2021) 위반 사항 2건

1. EU 기국 선박이 보고기간 중 트롤 어업으로 Alfonsino(BYS)를 어획하였으며 항구 검색 보고에 따르면 ~2,618톤이 양륙되었으나 사무국은 10년간 협약 구역 내 Alfonsino 어획에 대한 기록이 없어 시험조업으로 간주하였음

- (EU) 해당 선박은 전갱이 어업을 위해 허가된 선박이었으며 본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 후 시험조업이 아닌 위반 사항을 파악하여 해당 선박주에게 패널티 부과하였음

2. 러시아 기국 선박은 pelagic 어구를 활용하여 alfonsino(BYS)를 어획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항구 검색 보고에 따르면 ~1,092톤이 양륙되었음

- 러시아는 alfonsino 부수어획에 대한 사항을 사무국에 제출하였음. 해당 기국 선박은 전갱이 목표 어획중에 있었으며 alfonsino 어획은 부수어획이었음 주장

- 페루, 미국 등 해당 사항에 대한 깊이 우려하였으며 부수어획 정도가 아님을 강조하였음

- 과학위가 전달받은 자료로는 당장 설명이 어려우며 부수어획에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부수어획인지에 대하여 현재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보존관리조치 이행 관련 논의 사항

○ 선박 기록부 보존관리조치(CMM 02-2021) 개정 논의

- (주요 의견)

· (한국) 5항 등의 법적 효력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우려 표명하였으며 자료 수집에 대하여 shall를 추가하여 회원국 및 CNCP에게 의무

를 부여하길 주장하였음

- (쿡) 선박 기록부는 선박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며 의무감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함

○ 읍서버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보존관리조치(CMM 16-2021) 개정 논의

- 2021년에 대만, 한국, 에콰도르가 인가 절차를 받았으며 한국과 대만은 국가 읍서버 프로그램을 인가 받았음
- 에콰도르의 경우 자료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21년 내에 인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음
- 쿡, EU 등 회원국들은 내년도에 인가 절차를 진행할 회원국들이 앞선 회원국의 딜레이로 인하여 인가 기회를 받지 못할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 보존조치를 1년 연장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길 요청

○ 저층 어업 보존관리조치 검토

- 미국, EU를 포함한 다수 회원국의 지지로 저층 어업 CMM 및 VME 조우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진행될 회기간 작업반 수립 권고

○ 항구 검색 보존관리조치 검토 작업반 보고

- CMM 07-2021 부속서1에 단어를 추가하여 입항 요청서에 작성된 양은 “추정치” 일 뿐임을 분명히 하길 권고
- 작업반 의장은 향후 작업반이 항구 검색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를 CMM 02-2021(데이터 기준)에 어떻게 활용시킬 수 있는지 또는 데이터 증명 수단의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권고해주길 요청함

○ VMS 이행 보고서 발표

- (주요 의견)

- (호주) 내년 이행 보고서에 추가될 VMS 이행 사항에 대하여 어떤 요소들이 어떻게 평가될지에 대하여 기준 필요할 듯
- (의장) 내년 이행위에서는 VMS 이행을 위한 세션 추가할 것

가. 주요 논의 사항

□ 전갱이 보존관리 조치

○ 논의 배경 및 과학위 권고

- 2021년 보존조치 10항에 따라 전갱이 TAC는 782,000톤수로 설정되었으나 현재까지의 월별 보고서에 따라 보고된 총 어획량은 757,332톤수(총TAC의 96.8% 수준)임
- 전갱이 어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TAC 증가 및 연장(rollover)에 대한 과학위의 권고가 있었음
- 2022년 900kt 이하의 전반적인 전갱이 범위의 어획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15% 증가를 권고했음
- 2021년 전갱이 보존조치 표2의 어획 한도 국가별 비율은 올해 검토될 예정이었으나 HoD 회의에서 이 비율을 연장할 것을 합의함
- 2021년 보존조치의 28항에서 위원회는 과학위에게 전갱이 어업에 대한 국내 조치의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조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는 관리 전략 평가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정리하였음
 - 2021년 어획 결과에 대한 예비적 추정치에 따르면 2020년과 비슷한 양상의 쿼터 초과 어획(overshoot)(3%)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높은 자원풍도 예상치와 분명하게 낮은 어획 사망률 비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초과 어획의 영향은 무시해도 될 정도라고 권고하였음

○ (주요 의견)

- (페루) 자원량 보존 등의 이유로 보존조치의 개정을 찬성하지 않음

○ (논의 결과) - 투표(찬성: 13개국 / 반대: 페루 / 불참: 쿠바)로 채택

2022년 전갱이 어획 제한																											
5항	1항에 따라 CMM에 적용되는 수역의 전갱이 총 어획 제한 : 817,943																										
	<table border="1"> <thead> <tr> <th>회원국/CNCP</th> <th>톤수</th> </tr> </thead> <tbody> <tr> <td>칠레</td> <td>581 074</td> </tr> <tr> <td>중국</td> <td>57 129</td> </tr> <tr> <td>북 아일랜드</td> <td>0</td> </tr> <tr> <td>쿠바</td> <td>2 008</td> </tr> <tr> <td>에콰도르</td> <td>11 374</td> </tr> <tr> <td>유럽연합</td> <td>54 977</td> </tr> <tr> <td>페로 아일랜드</td> <td>9 978</td> </tr> <tr> <td>한국</td> <td>11 543*</td> </tr> <tr> <td>페루(HS)</td> <td>18 256</td> </tr> <tr> <td>러시아</td> <td>29 543</td> </tr> <tr> <td>바누아투</td> <td>42 064</td> </tr> <tr> <td>총</td> <td>817 943</td> </tr> </tbody> </table>	회원국/CNCP	톤수	칠레	581 074	중국	57 129	북 아일랜드	0	쿠바	2 008	에콰도르	11 374	유럽연합	54 977	페로 아일랜드	9 978	한국	11 543*	페루(HS)	18 256	러시아	29 543	바누아투	42 064	총	817 943
	회원국/CNCP	톤수																									
	칠레	581 074																									
	중국	57 129																									
	북 아일랜드	0																									
	쿠바	2 008																									
	에콰도르	11 374																									
	유럽연합	54 977																									
	페로 아일랜드	9 978																									
	한국	11 543*																									
	페루(HS)	18 256																									
	러시아	29 543																									
바누아투	42 064																										
총	817 943																										
*한국 2021년 10,027톤수																											
10항	회원국 CNCPs는 전갱이 회유 경로 내 2022년 전갱이 어획량이 900,000톤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과학위의 권고를 고려하여 이에 동의한다.																										

□ 대왕오징어 보존관리조치 (어획 노력)

- (논의 배경) 중국은 과학위의 권고에 따라 예비적 접근에 기초한 대왕오징어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며 개발 연안국이 협약 수역 내 어업을 더욱 확대 또는 개발할 수 있기 위하여 선박 수 및 총톤수를 제한하는 어획 노력 제한을 제안

과학위 권고
오징어 어업의 어획 노력은 선박 척수 및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된 채낚기 선박의 총톤수가 제한되어야 하며 각 회원국은 SPRFMO 선박 기록부에 기준 날짜에 따라 오징어 어업의 목적으로 허가된 선박을 확인한다. SC는 연안국이 SPRFMO CMM과 일관되게 대왕오징어 어업을 채낚기 또는 기타 어구를 사용하여 확대 및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notes)

- 중국의 제안서 주요 내용

	주요 내용
노력 관리	<p>- (2b) 2020년 12월 31일부로 오징어 채낚기 어업 선박으로 위원회 선박 기록부에 허가된 선박이 있는 회원국 및 CNCPs는 협약수역 내 오징어 어업이 허가된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박 척수와 총톤수(GT)를 표에 명시되어 있는것과 같이 제한시킨다.</p> <p>회원국 및 CNCP는 각 회원국 및 CNCP별 선박 수 및 총 톤수 수준이 표에 기록된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선박을 교체할 수 있다.</p>

<표 1>

허가 선박 제한	중국	한국	대만	총
선박 수	671	30	45	746
총톤수	644,820	27,464	45,499	171,183

- (2ter) 200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오징어 어업을 위한 선박이 위원회 선박 기록부에 등록되어있지 않지만 협약 수역에서 대왕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대한 과거 기록이 있는 회원국 및 CNCF는 대왕오징어 어업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회원국 및 CNCF는 오징어 자원 상태를 고려하고 해당 국가의 가장 높은 과거 기록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협약 수역내 대왕오징어 어업이 허가된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총톤수 및 대왕오징어 선박 척수를 제한한다.
- (2quarter) 위원회는 협약 수역 내 대왕오징어 어업 과거 기록이 없는 회원국 및 CNCFs이 협약 수역 내에서 대왕오징어 어업 개발을 허용할 수 있으며(may) 이는 SPRFMO OMM과 일관되게 이루어져야한다. 해당 회원국 및 CNCFs는 대왕오징어 선박의 척수 및 총 톤수를 제안하여 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을 받는다.
- (2quinquies) 상위 단락에도 불구하고, 개발 연안국의 경우 협약 수역 내 대왕오징어 어업을 개발 또는 확장 할 수 있으며 (may / should be able to) SPRFMO OMM과 일관되게 이루어져야하며 선박의 척수 및 총톤수에 대하여 사전 통지를 해야한다.
- (2sexies) 위원회는 늦어도 2024년 회의 또는 대왕오징어 자원 평가 완료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과학위의 권고에 따라 2bis, 2ter, 2quarter, 및 2quinquies를 검토한다.
- (2septies) 본 OMM은 향후 할당량 결정에 선례로 고려되지 않는다.

o (주요 의견)

- (한국) 본 제안서는 대왕오징어 자원량 보존을 위한 것인데 어획 노력을 추가시키려는 제안(2ter+2quarter)는 제안서의 목적과 맞지 않음을 우려하였음
- (한국) 만약 모든 회원국에게 동등한 어획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재 어획을 하고있는 회원국에게도 동일한 기준인 ‘과거 기록에 따른 제한 설정’ 을 추가시켜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해주길 어필
- EU, 미국, 대만이 반대함
- (한국) 추가될 어획 노력으로 인한 대왕오징어 자원량의 영향에 대한 과학적 평가 없이 본 제안서를 논의할 수 없음
- (미국) 과거 어획 기록이 있는 회원국에게 과거 기록에 따른 어업 기회를 주는 것은 동의함
- (칠레) 개발 연안국에게 협약 수역내 오징어 어업 기회를 증가시켜주

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안서 찬성

- (에콰도르) 어업을 개시하기 전 ‘사전 통지(prior notification)’ 를 위원회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함 표현

○ (논의 결과) 미채택

□ 대왕오징어 보존관리조치 (옵서버 커버리지)

○ (논의 배경) 에콰도르는 전장 15m 이상 선박에 대하여 승선 옵서버 커버리지의 점진적 증가로 어획된 대왕오징어어업 규제 및 추적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안

○ (제안 내용)

주요 내용
대왕오징어 어업에 참여하는 회원국 및 CNCPs는 자국 국기를 게양하고 전장 24m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옵서버 커버리지를 20퍼센트를 보장하며 해당 옵서버들이 CMM 02-2020(데이터 기준)에 명시된 데이터를 수집 및 보고한다. 옵서버 커버리지는 하기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a. 2022년 5월 1일까지 5%
b. 2023년까지 20%
c. 2024년까지 35%
과학위원회는 보고서의 결과를 검토하여 2025년까지 위원회에게 권고를 한다.

○ (주요 의견)

- (중국) 현재 과학위에서 옵서버 커버리지를 어느정도 올려야한다는 구체적인 권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현재 논의할 필요성 느끼지 못함
- (대만) CMM 16-2021에 일관된 옵서버 커버리지 기준인 것인지? 전장 24m 이하의 선박을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 제기함
- (뉴질랜드) 제안서 지지하며 알바트로스와 같은 바닷새 조우에 대한 이해 위해 지속적인 정보 수집이 필요함
- 위원회의 권고 차원에서 이행위 및 과학위가 전자식 모니터링이 위원회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할 것인지에 대한 권고를 제공해주길 요청함

- 위원회는 제10차 과학위에서 대왕오징어 어업에 적절한 수준의 옵서버 커버리지에 대한 권고를 제공해주길 요청함

○ (논의 결과) 미채택

□ 러시아 ‘시험어업’ 보존관리조치 위반 사항

○ (논의 배경) CTC9에서 러시아의 ‘시험어업’ 보존조치 위반 사항에 대하여 정의하지 못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 진행됨

○ 러시아는 해당 어업을 10년동안 지속해왔으며 이 선박은 그동안 전갱이와 redbait를 목표어획 해왔다고 주장하였음.

- FAO 기준에 따르면 표층(pelagic) 트롤 또한 중층(midwater) 트롤로 CMM 03-2021에 따라 alfonsino도 중층 트롤 어구를 사용하여 어획되었음을 주장

- 해당 사항은 ‘표층 트롤’ 과 ‘표층 어구’ 용어가 SPRFMO 보존조치에서 정의되지 않아 생긴 문제로 이 사항을 해결해야하는 문제임을 어필

- 러시아는 위원회가 CMM 13-2021의 기준에 따라 alfonsino 시험 조업에 대한 기준을 수립해야하는 문제임을 강조하였음

○ (주요 의견)

- (미국) 현재 2021년 어획에 대한 조사 결과가 없어 정확한 판단하기 어려우나 이는 분명한 미이행 사항임을 강조.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해당 어업을 수행했었다면 이는 단순한 부수어획 문제가 아닌 CMM 03-2021(저층어업)을 위반한 IUU 선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임을 어필

- (칠레) redbait 부수어획이라고 주장하기엔 어획량이 많았으며 이 수준이라면 시험 조업 CMM에 따라 어업활동을 했어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이행임

○ (논의 결과)

- 위원회는 과학위가 2022년 작업계획에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여 어종 어획 구성(composition) 패턴을 평가하며 이는 협약 수역내 모든 alfoncino 과거 어획 기록 및 예인별 수준까지 포함하도록 요청함
- 러시아의 이행 상태는 내년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defer” 됨

나. 기타 채택된 보존관리조치

보존조치	분류	주요 내용	주요 의견
CMM 05 (선박 기록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항) 각 회원국 및 CNCPs는 협약 수역 내 조업 허가를 받은 자국 선박 기록부를 관리 해야한다(shall) - (5항) 회원국 및 CNCPs는 협약 수역 내 조업 허가를 받은 자국 선박 기록부상 각 선박에 대하여 보조치 부속서1에 명시된 데이터를 수집해야한다(shall) - (6항) ~ 회원국 또는 CNCP는 사무국장에게 본 조치의 부속서1에서 요구된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위원회의 선박 기록부에 유효하게 포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12항) ~ 사무국장은 제출이 의무화된 정보를 제공 받은 선박만 위원회 선박 기록부에 포함 시켜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의무적으로 제출이 필요한 정보 및 부수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구별하여 회원국이 제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길 바람
CMM 02 (데이터 기준)	개정	- 날짜 업데이트	이견 없음
CMM 17 (해양오염)	개정	- 날짜 업데이트	이견 없음
CMM 14b (통발 시험어업)	개정	- 랍스터 산란 기간으로 구체적 기술	이견 없음
CMM 03 (저층 어업)	개정	- 검토 일정을 2023년으로 설정하며 2024년 UNGA의 저층 어업 검토에 따른 신규 정보에 집중할 것	- (미국) VME 등 저층 어업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함
CMM 07 (항구 검색)	개정	- CMM 07-2021 부속서1에 단어를 추가하여 입항 요청서에 작성된 양은 “추정치”로 간주되게 함	이견 없음
CMM 16 (오피서버 프로그램)	개정	- 오피서버 프로그램 인가 절차 1년 연장	- (국) 모든 회원국이 기회를 제공받기 위하여 1년 내 인가를 받지 않는 회원국이 있더라도 다음 회원국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개정해야할 것

다. 기타 미채택 제안서

제목	제안 국가	주요 내용	주요 의견
CMM 12 (전재)	에콰도르	- 해상 전채에서 대왕오징어를 삭제	- (중국) 현재 전채 이행에 대한 문제 언급된 것 없어 이 개정 필요 없음
페루 옴서버 대체 프로그램	페루	- 페루의 영세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5m 이하 선박에 대한 옴서버 대체 프로그램 제안	- (쿠) 보존관리조치 형식 또는 옴서버 프로그램 보존조치의 부속서 형식으로 갖춰서 내년에 다시 논의하길 희망
2022년 상업적 음향 조사 시험어업 제안	EU	- alfonsino 및 redbait에 대한 상업 음향 조사 진행 제안	- (칠레) 본 extractive 조사 활동의 transparent framework가 부족하여 지지할 수 없음을 강력하게 표명함

라. 기타 논의 사항

저층 어업 보존관리조치 검토 작업반

- 작업반 의장: 쿡 아일랜드
- 2022년 중 1차 작업반 개최 예정

CNCP 자격

- 자격 갱신: 큐라소, 라이베리아, 파나마
- 신규 CNCP 자격: 벨리즈

- (주요 의견) 중국은 벨리즈가 이전에 기구를 떠날 당시 지불 연체금이 있었던 사항을 면제시켜준 것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으며 이번 일이 향후 회원국/CNCP 자격을 논의할 때 선례가 되지 않도록 어필함

2023년 회의 일정 및 장소

- (장소) 상트 페테르부르크, 러시아
- (일정) 2023년 2월 6일-13일

위원회 의장 선출

이행위	의장	Ms. Katherine Bernal(칠레)
재정위	의장	Mr. Jimmy Villavicencio (에콰도르)
	부의장	Mr. Andres Couve (칠레)

□ 2022년 재정위원회 논의

○ 주요 내용

- 코로나 등 회원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증가하는 분담금에 부담감 표출
- NDS\$437,964 잉여 계좌는 회원국 배분하지 않고 계좌에 보유할 것
- CNCP 분담금도 2022년 회원국 분담금에 포함
- 2022년 과학위의 조사 지원금은 할당하지 않으나 이는 향후 선례가 되지 않도록 합의

○ 재정 규정 개정

	수정본 원문	번역
2조 4항	Unless otherwise decided by the Commission, for the budget category “Scientific Support” unspent appropriations may accrue between financial years, up to a limit of \$50 000. Beyond this level such funds shall be treated as surplus and transferred to the accumulated surplus account.	위원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과학 지원” 예산 범주에서 미사용 책정액은 회계 연도 사이에 최대 \$50,000까지 누적될 수 있다. 이 수준을 초과하는 기금의 경우 잉여금으로 취급하며 누적 잉여 계좌로 이체된다. (개발 도상국 지원금의 미사용 책정액에 대한 부분 삭제)
2조 5항	The Commission will review the “Scientific Support” and “Developing States” categories (and funds) at least once every four years	위원회는 “과학 지원” 및 개발국가 “범주 (및 기금)에 대하여 4년에 최소 한번 검토한다.

□ 22-23년 회원국 분담금

구분	22-22년도	22-23년도	증감
전체 예산	NZ\$ 1,297,349	NZ\$ 1,485,637	+12.67%
한국 분담금	NZ\$ 57,402	NZ\$ 57,625	+0.39%

Ⅲ 관찰 및 평가

□ 대왕오징어 어획노력 제한에 대한 제안서의 한계점

- 대왕오징어 어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무분별한 어획의 영향¹⁾으로 대왕오징어 어업을 통제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로
 - 중국은 자국의 과잉 어획 및 IUU 어업 근절 등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으로 인하여 2021년 7월-9월 오징어 조업 금지 조치와 같이 대왕오징어 어업 선박을 관리하는 노력을 내보였으나 남대서양어업자원보호기구(OPRAS)와 같은 기구에서 이를 그저 보여주기식 노력이라고 비판하였음²⁾
 - 그 노력의 연장선으로 중국은 대왕오징어 어업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중국이 SPRFMO에서 처음으로 제출한 제안서임을 위원회의 의장이 언급하며 감사를 표현하였음
- 중국은 자국의 제안서가 과학위의 권고에 따라 필요한 제안서임을 어필하였으나, 과학위의 권고에 근거하지 않는 2ter, 2quarter를 보면 모호한 의도가 보이며 제안서를 채택하였을 경우 따르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도 있었음
- 과학위의 권고에 따라 현재 오징어 어업을 하는 회원국의 어획노력을 제한하기 위한 논의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나
- 현재 어업을 하지 않지만 과거 기록이 있거나 과거 기록이 없는 회원국/CNCPs에게 어획 기회를 부여하는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한 이유와 근거 자료(예: 자원량 평가 시나리오 또는 과학위 권고 등)가 없는 상황에서 함께 논의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 제안서를 논의하기 위하여는 잠재적 어업이 최대 어느정도인지 과학위 차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한 자원량 변화 및 영향에 대한 평가가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1) Sea Shepherd Tracks Down and Exposes Notorious Chinese Squid Fishing Fleet off the Galapagos Islands, Sea Shepherd, 10/12/2021,
<https://seashepherd.org/2021/10/12/sea-shepherd-tracks-down-and-exposes-notorious-chinese-squid-fishing-fleet-off-the-galapagos-islands/> ((2022/02/21 검색)

2) Latin American fishing group criticizes China's squid-jigging moratorium as meaningless, SeafoodSource, 07/21/2021,
<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latin-american-fishing-group-criticizes-china-s-squid-jigging-moratorium-as-meaningless> (2022/02/21 검색)